

재미나는 표준이야기

사람도 표준으로 관리한다

'개인재무설계사 자격요건' 편



투자현황을 분석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민을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요즈음에는 조기 은퇴가 확산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 마련에 고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재테크를 통한 자산관리 방법을 기술한 서적들이 서점가에서 붓물을 이루고 있다.

한 권의 책으로 개인의 자산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재무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입 등을 파악하고 각종 금융상품, 세금 및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 진분성이 부족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개인들을 위해 대신 재무 상태를 점검·관리해주는 '개인재무설계사'가 있다.

'개인재무설계사'는 노후를 위한 은퇴설계,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설계, 투자 설계, 세금·상속등과 관련된 부동산 설계 등을 도와주는 종합 금융서비스 전문가를 뜻한다.

하지만 상대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자신이 평생

- (국제규격에 명시된 개인재무설계사의 업무절차)
- ▶ 고객과의 관계정립 ▶ 목표 설정 및 관련자료 수집
 - ▶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 재무설계 제안서 작성 및 제시
 - ▶ 실행 ▶ 모니터링

모아온 혹은 그 일부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설계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가능할까?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는 소비자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5월, 산하에 기술위원회(TC222)를 두고 개인재무설계사의 자격 요건 및 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작업을 해 왔다.

그 결과 마련된 것이 2005년에 제정된 개인재무설계 국제규격(ISO 22222 : 개인재무설계사의 자격요건)이다.

이 국제규격은 국제적으로 동의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설계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개인재무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규격에 명시된 전문 개인재무설계사의 자격요건)
 ▲교육이수·자격시험(적격성 여부) ▲윤리적 행동 ▲실무경험

(국제규격에 명시된 개인재무설계사의 업무절차)
 고객과의 관계정립 ▶ 목표 설정 및 관련자료 수집
 ■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 재무설계 제안서 작성 및 제시
 ■ 실행 ■ 모니터링

이러한 이유로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는 독립적인 제 3의 인증기관이 가장 객관적으로 설계사를 검증할 수 있다고 보고, 인적 사원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증기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국제규격을 마련하였다.

SOMEK 17000: 적합성 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

SOMEK 17050: 적합성 평가 - 공급자 자기 적합성 선언

한편, 한국산업규격(KS)에는 규격번호 KS A ISO/IEC 17024 (적합성 평가 - 사적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재무설계사와 같은 '사람'의 자격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상기 KS 및 ISO·ISO/IEC 규격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에서 해당 규격 검색으로 규격을 열람함으로써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기술표준 2008.10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증에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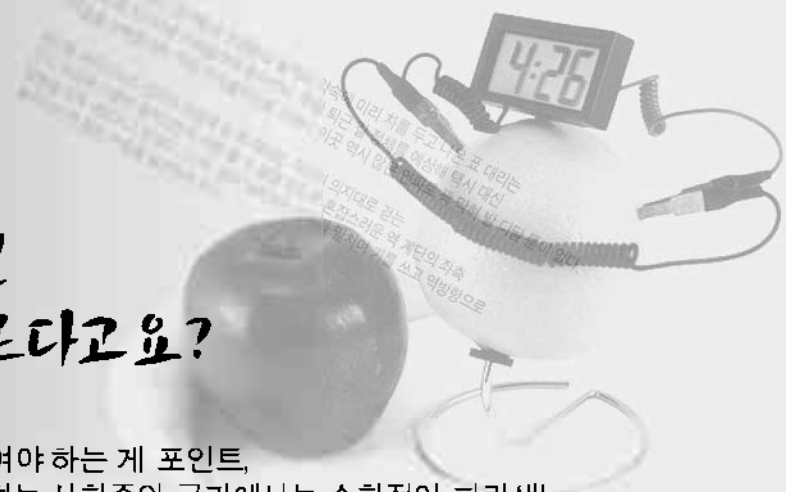
국제규격에 개인재무설계사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들의 적합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설계사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무설계사 또는 관련 기업들의 이해다툼에 입히지 않도록 조정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소화전 색깔이 다르다고요?

소화전은 눈에 잘 보여야 하는 게 포인트, 붉은 색을 많이 사용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소화전이 파란색! 역사와 관습 등 사회·환경 요인 등으로 인한 사회 약속도 표준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 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내는 들어오는 아들을 반갑게 맞으며 손수 준비한 간식을 내어준다. 맛있게 간식을 먹던 준이가 얘기를 꺼낸다.

“엄마, 아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요, '쓰임새는 같은데 나라마다 모양이나 색깔이 다른 것' 하나씩 찾아보고, 그림까지 그려서 월요일 날 올 때 가져 오래요.” 준이의 말에, “이번 숙제는 엄마한테도 좀 어려운거 같은데? 휴~ 애들한테 쉬운 숙제 좀 내주시... 음... 엄마도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뭐가 있을까? 아빠랑 다 같이 고민 한번 해보자”라며 아내가 말한다.

“엄마, 외국 여행 나가본 애들은 잘 알까?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이 같은 말에 약간 마음이 불편해진 표 대리는 아들에게 다소 상기된 어조로 말한다.

“준아, 그 숙제 가지고 걱정할 것 없어. 엄마 아빠랑 같이 찾아보면 다 나와. 미국, 유럽은 나중에 너희들 크면 다 같이 나가봐도 늦지 않아.”라며 자신 있게 아들을 달래줬지만, 솔직히 아들의 숙제를 해결할 자신은 없는 표 대리.

어느덧, 저녁 식사를 하고 TV 앞에 둘러앉은 표 대리 가족은 과일을 먹으며 퀴즈 오락 프로그램 채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다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공공시설물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빨간색,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에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노란색을 표준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뉴욕과 보스턴 등의 도시들에서는 경관과의 조화를 우선시해 노란색 대신 검정색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 또는 지역마다 다른 색을 사용하고 있는 이 공공시설물은 무엇일까요?”



퀴즈 문제에 답하기 위해 출연자들이 백~부지 누르기 경쟁을 한다.

TV를 보던 표 대리도 이에 실체라 큰 소리로 말한다.

“저거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정답은 소화전이야 소화전! 지난 번 미국 출장 갔다가 보게 되었는데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서, 내가 현지인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나라마다 소화전 색깔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사회적 특성 요인이 반영된 표준은 오히려 그 지역 또는 나라의 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기 되기도 한다.

“정말 예요, 아빠?” 준이가 아빠의 말에 놀랄 거들도 없이 TV에서 정답을 발표한다.

“네, 정답은 바로, 소화전입니다.” 정답 발표와 동시에 표 대리, 자랑스런 듯이 크게 웃는다.

“거봐~ 내기 맞췄잖아! 하하하” 표 대리가 아이처럼 신나하는 모습에 아내가 피식 웃으며 말한다. “정답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당신이 잘 맞췄네. 저기 정답 설명 좀 들어보자.”

프로그램 MC가 관련 화면들과 함께 정답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소화전은 불과 불을 모두 떠올리게 하는 공공 시설물로 불의 빨강, 불의 파란색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소화전의 색채는 화재라는 위급상황에서 눈에 잘 띄어야 하기 때문에 주목성이 높은 빨간색이나 명시성이 높은 노란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나 동유럽 국가들은 추운 계절과 건조한 기후 때문에 불의 유지 및 공급이 중요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도시 환경에 붉은 색이 보편적으로 곳곳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빨간색 대신에 오히려 식별이 더 쉬운 파란색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소화전을 표시하는 색이 나라마다 각각 다른 것은 그 지역의 관습, 환경, 태도, 기능 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던 표 대리 부부는 거의 동시에 말했다. “준아, 네 숙제 해결됐다. 나라마다 쓰임새는 같으나 모양이나 색깔이 다른 건, 바로 소화전이야.”

“네, 엄마, 아빠, 저도 지금 그 생각 하고 있었어요. 소화전은 나라마다 다 빨간색을 써야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오늘 TV 본 친구들이 다 소화전을 써오면 어떡하지?”라며 준이가 약간 걱정스러운 듯 말하자 표 대리가 아들 준이의 어깨를 다독인다.

“더 찾아보면, 이렇게 나라마다 색깔을 가지고 약속처럼 지정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 같은 것들이 더 있을 거야. 자~준아, 우리 인터넷 검색도 해볼까?”

표준 TIP

사회적 약속도 표준



사람의 눈은 색-형태-질감 순으로 사물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색채를 사용해 왔고, 특히 공공장소 등에서 안전이나 경고, 지시에 관한 정보를 나타낼 때 색채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비상구 표시가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표준입니다. 하지만 소화전 색깔이 나라마다 다르듯이 각종 시설물을 나타내는 기호나 색상이 나라나 지역별로 다른 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 지역의 오랜 관습이나 특성, 역사나 사회적인 요인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약속도 표준이 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관습적, 사회적 표준들도 많이 알고 이해한다면, 그 나라를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 기술표준 2008.10